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1월 5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5장 1-7절

설교제목 :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안식년의 핵심은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레위기 25:2, 4) 이처럼 매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은 땅의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땅이 쉬는 것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대학교수나 목회자들이 6년을 사역하고, 7년째는 쉬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안식년은 전혀 그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레위기 안식년은 농사짓는 자가 힘들니까 한 해는 쉬어라에 초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쉬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년은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안식년은 땅이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25장이 말하는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25:2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에서 ‘여호와 앞에’로 번역된 ‘라이호와’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 속한’이란 뜻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안식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땅이 가져야 할 원리로 정해 놓으신 창조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특별한 질서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바로 일정 기간마다 땅은 반드시 안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년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6-7절에 보면, 안식년에 그 땅에서 스스로 자라서 얻어진 수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확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와 종들과 거류민 뿐만 아니라, 가축과 들짐승을 비롯한 그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년의 법이 그 땅으로 대표되는 생태계 전체의 유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안식년은 땅을 포함하여 그 땅에 포함된 모든 피조물 전체를 배려하는 창조질서입니다. 생태계의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년은 안식의 축복과 기쁨이 토지 곧 인간이 거하는 자연환경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모두 다 안식의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 즉 지구는 어떤 특정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이 지구 상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이 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켜야 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특별히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과학자들 10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고 2100년에는 지구의 온도가 4도가 늘어서 지구 대부분은 살수 없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 멸망은 다름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많습니다. 1950대 동남아 보르네오 섬의 3/4이 열대우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림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오랑우탕이 살던 이 열대우림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마다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삼림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막화가 가속되고, 지구의 산소가 삼림에서 생겨나는데 점점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오염으로 인해 강이나 바다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화의 문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역시 심각합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입니다. 문제가 도는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인데,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만 230만톤 가량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도시화로 인해 지난 200년간 석탄과 기름을 떼면서 나온 탄소배출량은 살아 있는 생물을 수백 만년 동안 태우는 양과 맞먹는 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은 이 땅은 단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9-22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자신의 썩어짐 가운데 건짐받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만물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썩어짐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온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물의 완전한 회복에 동참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그 땅’입니다. 주다는 동사가 현재 주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현재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 땅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자연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금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안식을 이룰 수 있습니까? 먼저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생태계 파괴의 주범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에 휩쓸려 살지 말고,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은 개인적인 로컬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하나 뭐한다고 지구가 달라지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될 때 생태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작을 것을 실천한다면 이 땅에 온전한 안식을 위해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안식년의 법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오늘날 수많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들을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이 땅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원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